

지구촌 '잔혹한 여름'...7월 폭염 이어 8월 기후재난

폭우·폭풍·산사태·산불 등
갖은 극단기상에 신음
기후변화로 기상 재난 빈발
전문가 '지구 열대화' 잇단 경고

지구촌이 기후변화 속에 유례없이 잔혹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폭염에 신음한 데 이어 이번 8월은 갖은 자연재해로 유린된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지구촌 곳곳은 폭염, 폭우, 홍수, 산사태, 가뭄, 산불, 폭풍 등에 시달리고 있다. NYT는 현시점을 '극한의 달'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여겨지던 미국에서 자연재해는 두드러진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대(UCS)는 미국 인구 3억3천만여명 중 1억370만 명이 기상이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집계했다.

미국 서남부 지역에는 이달 수십 년 만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하면서 하루 동안 1년 치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날씨 좋기로 유명한 샌디에이고에는 20일 하루 동안 비 1.82인치(4.62cm)가 내려 역대 8월 강수량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의 8월 최대 기록은 46년 전인 1977년 8월 17일의 1.80인치(4.57cm)였다.

하와이에서는 지독한 가뭄 속에 산불이 민가를 덮쳐 전례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달 8일 시작된 산불로 하와이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14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이 불에 탔다.

이번 산불에는 적은 강수량과 더위로 말라버린



남미 칠레를 강타한 집중 호우로 침수된 중부 비오비오주 카브레로 지역을 21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2일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세나프레드·Senafred)은 지난 19일부터 중남부에 쏟아진 비로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초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30년간 하와이의 전반적 강수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번 여름 마우이섬 3분의 1은 극심한 가뭄이나 중간 수준의 가뭄을 겪은 것으로 분류됐다.

초목이 말라 불쏘시개가 되는 현상은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극한 기후 현상은 인도, 북미 등 각지에서도 나타났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산맥 자락에 있는 히말찰프라데시에서는 약 2주 전 몬순(우기) 폭우로 24시간 동안 50명이 숨졌다.

서부에서 지속된 몬순 폭우로 마하라슈트라에

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재해다.

과학자들은 우기에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건기에 가뭄이 더 심해지는 극단 현상을 기후변화의 특색으로 본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은 자연스럽게 우기에 홍수와 산사태가 더 위험해졌다.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1000건에 달하는 산불이 일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미국 뉴욕주 전체 크기에 해당하는 14만km²에 달한다.

모로코와 일본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남부 유럽에도 지난달에 이은 폭염이 예고됐다. 앞서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이 섭씨 16.95도로 1940

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역대 월별 기록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지구촌 전체 인구 81%에 해당하는 65억 명이 최소 하루는 폭염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폭염은 폭우, 폭풍처럼 단시간에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대규모 온열질환을 유발해 보건과 경제를 쪼먹는 까닭에 심각한 재난으로 간주한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앞으로 심해지면서 극단적 기상으로 인한 재난도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소속 기후과학자 대니얼 스펀인은 "2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여름은 운 좋게 느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일본 소득격차 역대최대 수준 "노인·저소득자 증가가 원인"

일본의 가구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날 발표한 2021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니 계수가 기존 최고치였던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세금과 사회보장료를 지불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지니 계수는 0.5700으로 직전 조사 시점인 2017년보다 0.0106포인트 상승했다.

또 역대 최고치인 2014년 조사의 0.5704보다 불과 0.0004포인트 낮았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러 크렘린궁 5km 상업지구서 드론 폭발...공항도 일시 폐쇄

모스크바 지난달부터 세 차례 피습 젤렌스키 "러 본토 공격 불가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 시티'에 23일 새벽(현지시간) 또다시 드론(무인기)이 날아들어 건설 중인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고 리아노보스티·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모스크바의 다른 지역도 무인기 공격을 받았으며 그 여파로 모스크바 인근 공항들의 운영도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본토 무인기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바인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날 2대의 무인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다 요격됐다

고 전했다.

그는 "오늘 새벽 방공망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의 모자이스코에 구역에서 무인기 1대를 격추했고, 두 번째 무인기는(모스크바 시내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 시티'에 건설 중인 건물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지 재난당국은 모스크바 시티에 지어지던 건물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시티는 크렘린궁에서 약 5km 떨어진 비즈니스 센터로 20여층에서부터 100층이 넘는 여러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센터엔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 사무실, 상가 등이 입주해 있다.

모스크바 시티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두 차례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새벽 3시께 모스크바 시티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모스크바 시티 외에도 시내 북쪽 힘키 지역과 양가르스카야 거리, 북서쪽 보로딘스카야 거리, 미치노 지역 등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또 이날 드론 공격을 전후해 모스크바 외곽 세레메티예보, 도모데노보, 브누코보 공항 등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도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드론 공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어떤 나라, 우리 압박" 美견제하며 개도국 협력 강조 남아공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떤 나라는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에서 "우리는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회담에서의 자신의 기조연설 일부인 "남의 등불을 끈다고 결코 자신이 더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썼다.

시 주석은 또 "각국 인민이 바라는 것은 냉랭전이나 소집단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라거나 "군사동맹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자신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중국 포위에 나선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모든 나라는 발전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며 "중국은 여러 나라와 협력해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국가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청년들 군사학교 몰려 취업난에...최대 규모 뽑아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현지 군사학교들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뽑았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전역 27개 군사학교에서 올해 1만7000명의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여명 늘어난 규모로 2017년 중국군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된 후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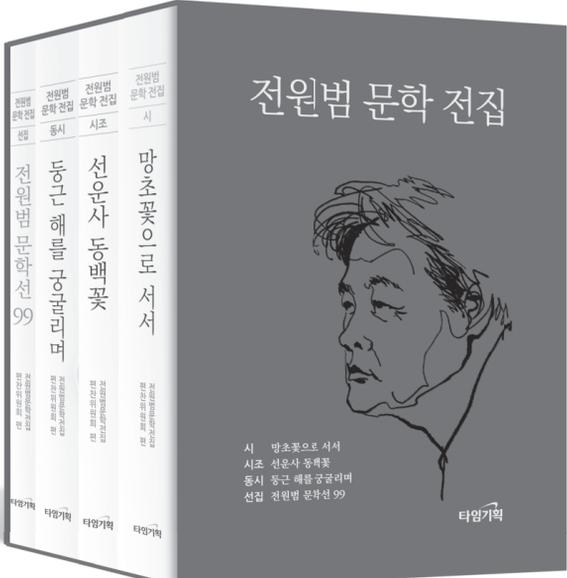
2017년 중국군 지도부는 군사 훈련을 능률화하고 로켓군 창설 등 병력 개편을 반영하고자 개혁 작업을 단행하면서 일부 군사 학교들을 통합했다.

중국 군사학교들이 고교 졸업생 선발을 늘린 것은 지난 6월 16~24세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큰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SCMP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고등학교 졸업생은 820만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7월 실업률 발표를 돌린 중단해버렸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